

“언론악법 무효” 광주서 대규모 규탄

민주 지도부 총출동... 대여 비판 수위 높여 정세균 “공직사회 호남 홀대 전방위 확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10일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6일 ‘덧발’인 광주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 YMCA앞에서 시민·당원 등 8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민주당 광주·전남 합동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박주선·송영길·안희정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김동철·주승용·박지원·이용섭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 1년 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남북관계의 3대 위기가 국민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며 “무능과 과오를 반성해야 할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방송장악을 통해 영구집권 체제를 만들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불법 대리투표와 재투표로 날치기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라며 “방송장과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이날 정오 정세균 대표는 광주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 들어 공직사회에서 호남 출신들을 홀대하는 풍조가 시작됐고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사흘째 장외투쟁 중인 정 대표는 “오늘 아침 한 공직자로부터 호남 출신들을 숙청하다시피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며 “호남출신 인재들이 차별받고,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올해 700억원이 책정됐던 목포대교 건설 사업이 내년엔 250억원으로 줄었으며 그 차액은 4대강 사업에 투입되고, 그 중 58%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며 “내년 4대강 사업에 8조6천억원이라는 투입되면 호남고속철도를 비롯한 전국의 SOC사업이 심대한 예산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이 인사와 예산 편중이 이뤄지지 않도록 민주당은 통계를 바탕으로 철저히 따지고 제역할을 다해 정권을 감시·감독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사흘간의 광주·전남지역 순회 장외투쟁을 마치고 이날 밤 늦게 상경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30여명이 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민주당 광주·전남 합동 규탄대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9월국회 등원시기 싸고 논란

정대표 “지금 무효화 투쟁 전념할 때” 일부선 검찰총장 청문회 기점 주장도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 내에서 9월 정기국회의 등원 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균 대표가 5일 목포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F1지 원법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한 것이 발단이 됐다. 누가 들어도 9월 정기국회 등원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6일 광주 센트럴관광호텔에서 광주지역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9월 등원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시점도 아니다”면서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원천무효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승리의 그날까지 일체 생각하지 않고 무효화 투쟁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다”

고 밝혔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정 대표의 회견 이후 별도 언론브리핑을 갖고 9월 등원설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도 ‘미디어법 원천무효’라는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장외투쟁에 전념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미리 출구전략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여론의 역풍도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국에 대처하자는 이야기다. 대부분 의원들이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정기국회 준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한 주요당직자는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원내의 병행투쟁으로 분위기를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디어법 위법’ 의견 민주당, 현재에 제출

민주당은 최근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공개변론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의견서를 6일 현재에 제출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미디어법은 재투표, 대리투표 등 의사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 의견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의견서는 미디어법 중 방송법의 경우 투표 종료선언 후 표결결과까지 나와 실질적·형식적으로 투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의결절차상 부족으로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2차 표결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법에 대해서 수정안의 경우 반드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한 국회법 절차를 생략한 채 투표 개시 선언 이후에도 수정안의 내용이 의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진만큼 무효라는 의견이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언제든지 야당과 대화 용의”

한나라, 민주 장외투쟁 비난속 강은 압박 구사

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의 미디어법 무효 장외투쟁과 관련, 비난을 이어가면서도 민주당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강은 양면의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참석 등으로 국회 복귀 시기를 저을 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과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날도 민주당의 ‘나 홀로 장외 투쟁’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논쟁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밖으로만 돌아다니며 일방적인 악선전과 선동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 청문회,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이제 메아리 없는 고성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대략 100명 안

팍의 지역당원을 모아놓고 장외집회를 하는 것 같다”며 “폭염 속 장외 집회는 국민의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의했다. 김정훈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허심탄화하게 대화를 나눌 생각”이라며 “9월 정기국회 문제, 국회폭력 방지와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정비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언제든지 야당과 대화할 용의가 돼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정기국회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수석 교체·정치인 누가 입각하나 관심

이대통령 귀경... 휴가구상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후 나흘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다. 당초 지난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던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이 여러 변수로 인해 전반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번 휴가기간 방향을 잡고 최종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 개편 및 개각의 폭과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 인사검증 작업은 일체감치 마무리됐으며, 이 대통령이 이번 휴가기간 방향을 잡고 최종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일부 수석을 교체하는 것을 신중타으로 이 대통령의 ‘단계적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 개편과 개각의 선후관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천성과 내정철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동기 민정수석을 비롯해 대부분의 수석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경길 대통령실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미확인 소문까지 나돌고 있으나 개편의 밀감에 따라 유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개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두차례 개각에서 보여준 ‘거북이’ 인사스타일과 인사 검증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광복절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예상보다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인 입각’은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당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집권 중반기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로열티가 높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부에 포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서는 4선의 홍준표 의원과 3선의 임태희 의원과 재선의 주호영, 나경원, 최경환 의원 등이 유력한 입각 대상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의원과 ‘친박계’ 정책통인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처에,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주호영 의원과 국회 문방위 간사로 최근 미디어 관련법 처리의 ‘1등 공신’인 나경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 거론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 기용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연합뉴스

베트남 국제결혼

베트남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반걸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인들께 가담하고 있으며 가족을 돕고-영양해드립니다!

- 1.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인들께 가담하고 있으며 가족을 돕고-영양해드립니다!
- 2.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인들께 가담하고 있으며 가족을 돕고-영양해드립니다!
- 3.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인들께 가담하고 있으며 가족을 돕고-영양해드립니다!
- 4.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인들께 가담하고 있으며 가족을 돕고-영양해드립니다!
- 5.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인들께 가담하고 있으며 가족을 돕고-영양해드립니다!
- 6.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인들께 가담하고 있으며 가족을 돕고-영양해드립니다!

베트남 정부는 국제결혼을 원천으로 허가합니다. 베트남은 출생 및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일통치 체제입니다. 베트남은 치안과 법치주의를 중시하며, 베트남은 베트남의 미래를 밝게 생각합니다.

무등산 불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원부도장 왕산의 묘지를 보기 권력하겠습니다!

- 1. 선원부도장 왕산의 묘지를 보기 권력하겠습니다!
- 2. 선원부도장 왕산의 묘지를 보기 권력하겠습니다!
- 3. 선원부도장 왕산의 묘지를 보기 권력하겠습니다!
- 4. 선원부도장 왕산의 묘지를 보기 권력하겠습니다!
- 5. 선원부도장 왕산의 묘지를 보기 권력하겠습니다!
- 6. 선원부도장 왕산의 묘지를 보기 권력하겠습니다!

문의: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